

생활을 디자인하면 행복이 더 커집니다

# 행복이 가득한 집

www.design.co.kr 가격 7,200원 200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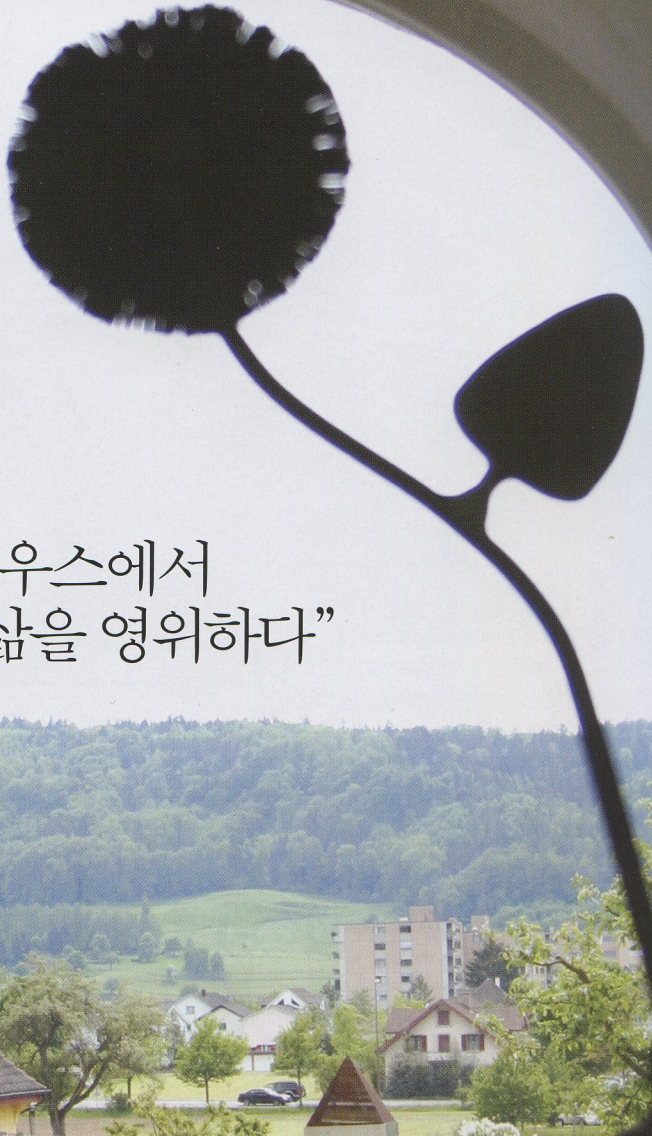
9 771227 115006  
ISSN 1227-1150

상상만으로도 시원한  
竹林紀行

요즘엔 요리 잘하고 집 잘 꾸미는 남자가 인생에서 성공한다  
공방시대, 손끝으로 만드는 인생의 재미 | 초여름 남편에게 리넨을 입혀  
근사한 명품 박스 120% 활용법 | 흙건축 미술관 김해 클레이아크 뮤지엄  
인도차이나 반도로 떠나는 미각여행 | 평범한 진주, 세련되게 치장하  
옥상 위 펜트하우스 vs. 차분한 지하 공간



Organic Style  
자연이가득한



“동굴 같은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에서  
태초의 삶을 영위하다”





## part 2 地下的 집을 말하다

### 바다보다 깊고 고요한 지하에 빠져 살다

직사광선을 피해 어둡고 서늘한 지하에서 몇 년을 두고 서서히 무르익는 와인. 지하를 보금자리로 선택한 그들의 생활은 흠사빈티지 와인처럼 진지하다. 땅속 흙 내음을 벗삼아 자연친화적인 삶을 가꾸어가야 하면 적막한 가운데 작업 삼매경에 푹 빠진다. 살기 전에는 몰랐다. 그런데 살아보니, 지하라서 더 좋다.

왼쪽 산 중턱에 지어진 움브리히트 씨의 언더그라운드 하우스의 아치형으로 난 유리창에서 바라본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듯한 독특한 느낌을 전해준다. 흐린 날이었지만 실내를 흰색으로 마감하여 그리 어둡지 않았다. 1 작은 산을 등지고 노란 유채밭을 품에 안은 그의 지하 집은 멀리서 보면 마치 땅으로 솟아난 형태를 띠고 있다. 벌써 지어진 지 16년째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 지하 1층에 자리한 거실. 흰색 벽면을 배경으로 놓인 무채색의 소파가 모던한 아파트 같은 느낌을 준다. 3 지하 2층 사무실. 작업에 몰두할 수 있게 책상을 움푹 들어간 곳에 놓았다. 계단 옆 벽면에는 그가 사랑하던 강아지의 모습을 그려넣었다. 4 지하 1층 주방에는 나무로 불을 지피는 재래식 오븐을 설치하고 그 주변에 벽화로 선반을 그려 장식했다.



2

### 건축가 헤르베르트 움브리히트 Herbert Umbricht

스위스 동화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하이디 마을에서 차로 1시간 남짓 떨어진 작은 도시 디터콘Dietikon. 취리히가 지척에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병풍처럼 둘러싼 산 중턱에 별장 같은 집들이 둘러앉은, 전형적인 스위스 풍경을 보여주는 마을이다. 어른 키를 훌쩍 넘는 노란 유채꽃들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는 야트막한 언덕, 바로 여기에 이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곳에 사는 건축가'로 유명한 헤르베르트 움브리히트 씨의 언더그라운드 하우스가 자리해 있다.

16년 전, 이곳에 산과 들판을 매입한 그는 주변 자연환경을 있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집을 짓고 싶었다. 그러던 중 지하 주거 공간 건축가로 알려진 피터Peter 씨의 언더그라운드 하우스를 보고, 한 치의 주저 없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의뢰했다. 움브리히트 씨의 집은 단순히 지하에 만든 집이 아니다. 산자락에 굴을 파서 만든 집으로, 지하 수백 미터에서 끌어올린 지열로 난방이 되고 24시간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는 '친환경 에코하우스'라고 할 수 있다.

"동네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텔레토비 집이라면서 저더러 텔레토비를 닮았대요. 하지만, 이 집은 그런 TV 프로그램이 나오기 훨씬 전에 지은 집이에요. 마치 토끼 굴처럼 생겼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인류 최초의 집은 바로 이런 굴에서 시작되었어요. 이 주변을 오가는 동물들처럼 자연을 닮은 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주변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고 땅 밑으로 굴을 파듯이 지은 그의 집은 지하 2층 구조로 되어 있다. 지하 2층에는 건축가인 움브리히트 씨의 사무실과 화장실, 회의실, 와인 저장고, 보일러실이 있고, 위층인 지하 1층은 침실과 거실, 부엌, 욕실이 있는 주거 공간이다. 한마디로 지하에 자리한 복층 구조의 주택인 셈. 그러나 지하실의 칙칙한 분위기는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24시간 자동으로 조절되는 통풍 시스템 덕분에 곰팡이나 냄새, 습기 걱정이 없다. 채광 또한 땅 위를 향해 난 창문이 말끔히 해결해준다. 마치 천창처럼 나 있는 창문을 통해 중일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낮에 조명을 밝힐 필요 없고 >>



3



4

I



지하 1층에 자리한 주방은 벽  
화 장식이 인상적이다. 주인  
인 움브리히트 씨는 조리대 벽  
면에 이 집을 지어준 건축가  
피터의 얼굴을 화가에게 의뢰  
해 그려넣었다. 콧수염이 특징  
인 그를 꼭 닮게 그려놓아 실  
제 피터를 본 사람들은 이 벽  
화에 감탄을 하게 된다고. 눈  
부분에 조명을 설치한 재치가  
돋보인다. 건축가 피터 씨와  
움브리히트 씨는 집을 짓기 시  
작하면서 지금까지 16년지기  
친구로 지내고 있다.